

협회행사 보고 :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제22차 관리자 세미나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는 2002년 11월 14일(목)부터 11월 15일(금)까지 양일 간 서귀포 풍림 리조트에서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창립30주년 기념 제22차 관리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먼저 이현청(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대학의 변화와 사서행정직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먼저 지식정보화시대는 대학이 지식의 복합체가 되는 지식 콤플렉스(knowledge complex)역할을 하게된다고 말하였다.

도서관 기능의 변화는 21세기에는 도서관이 대학의 지식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의 심장’의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은 대학 사회환경의 변화, 정보 요구의 변화 그리고 정보전달과 커뮤니케이션의 급격한 발달에 따라 변화에 변화를 거듭해 오고 있다. 특히 컴퓨터와 대중매체의 발달은 정보기술의 혁신을 가져왔으며 초고속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인터넷 등의 보편화가 이루어져 대학도서관 기능에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 21세기의 대학도서관은 집중화와 분산화를 통한 정보의 축적과 유통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학교육에서의 심장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렇듯 21세기 대학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사서행정직원의 역할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역할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기개발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사서행정직원의 역할은 부차적, 2차적 역할이 아니라 대학교육의 내실화의 질적 제고를 위한 참여적, 동반적 역할이어야 하고 변화의 수혜자가 아니라 변화의 주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점에서 사서행정직원의

역할 변화와 관련된 종합적인 시각과 역할 재정립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박동은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서는 ‘도서관 자료로서의 e-Book’에 대해 발표하였다. e-Book이란 모든 형태의 디지털 매체를 이용해 지식과 정보를 출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e-Book은 경비절감, 휴대 가능성, 저장 공간의 축소, 유지와 보관이 용이, 검색의 용이성, 다양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으나, Paper 자료에 비해 저작권 보호가 힘들며, 기술종속성이 높고, 문화적 문제가 있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현재 국내외에서 쓰이고 있는 전자책 문서 포맷의 경우, XML, GTMS, PDF, 그리고 업체에서 개발한 자체 포맷 등 다양하고, 다양한 문서 포맷의 사용은 다양한 뷰어와 저작 도구의 개발 요구, 현재 e-Book 업체들은 각 사마다 다양한 문서 포맷을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고, 그 결과 e-Book 콘텐츠 교환의 어려움과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복 투자가 발생하며, e-Book 활성화를 위한 많은 선결 과제 중, 가장 시급한 문제로 국내 e-Book 문서에 대한 표준 포맷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서관의 입장에서 볼 때 e-Book이 주는 불확실성은 하드웨어 중심인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중심인가?, 솔루션 중심인가 아니면 콜렉션 중심인가?, 대체제인가 보완제인가? 시장의 성숙 가능성은?, 가능한 표준화의 범주 및 구속력은?, 자료 수명은?, 도서관 e-Book 이용방식은? 등 이라고 할 수 있다.

박동은은 이러한 불확실성의 대응전략을 내부전략과 외부전략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우선 내부전략은 조직 자체가 환경에 잘 적응하도

록 만들어, 환경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고, 외부전략은 조직에 맞도록 환경을 변화시키는 직접적인 전략을 뜻하며, 이는 소비자의 기호와 욕구를 형성시키기 위한 광고의 이용에서부터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경쟁자와의 협정, 연합 그리고 로비 활동까지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전략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서관의 각종 기능을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부가한 형태의 도서관 시대에는 모든 정보는 전자 매체화되고 온라인 검색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e-Book이 도서관이 고객중심으로 서비스의 방향을 전환하려는 도서관에 장애 요소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결론 맺었다.

조왕근 한양대학교도서관 사서는 "사서 재교육에 관한 제언 -사립도서관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먼저 우리 나라 사서는 자신들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 대한 책임성과 지속적인 변화 발전에 대한 주체의식이 부재하여, 사서직의 안정성 속에 숨어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도 전문직으로서 재교육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 전문직임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사서의 재교육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선 정보기술의 발전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을 통한 도서관간의 교류협력이 확산되고 웹을 통한 도서관 서비스 형태가 변화하면서 도서관에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서비스 영역이 확산되고 있다. 다음으로 도서관 매체의 변화와 정보특성의 변화가 이유가 되었다. 도서관위주의 서비스에서 점차 비도서 자료, 멀티미디어 자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다음으로는

이용자 형태의 변화와 사서와 사서직의 위기 때문이다. 재교육과 계속 교육(Continuing Education)을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다.

조왕근은 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첫째,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들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 직업에 종사하는데 보통 30년 내지 50년을 보낸다고 한다. 둘째, 대학이나 대학원의 정규교육으로 전문직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고, 셋째, 전문직은 평생 교육이 필수이며, 넷째, 신입직원의 실무교육이 필요하고, 다섯째, 업무변동이나 진급에 따라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사서 양성제도가 첫째, 사서자격 승급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없고, 둘째, 전문직단체로서 재교육 프로그램이 없이 개인적인 노력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셋째, 현장에서 직급별 업무역할 구분이 없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사서 재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직 교육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자체 교육프로그램이 부재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사대도협으로는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재교육 계획이 필요하고, 기존 재교육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사대도협 특성을 반영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기존 재교육 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재교육과 직급승급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사서 자격등급이 업무에 적용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서로서 우리의 잠재능력을 확인하고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자고 주장하였다.(기사제공 :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